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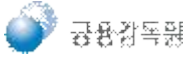

	<h1>보 도 설 명</h1>			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21.12.22(수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代 손 영 채(02-2100-2601)	<b>담 당 자</b>	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		
	금감원 특별사법경찰실장 황 진 하(02-3145-5601)		김 준 호 팀장 (02-3145-5602)		

**제 목 :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 
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**  
**[경향신문 12.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**

## 1. 기사내용

- ☐ 경향신문은 12월 22일자 「[단독] 금감원 특사경 2배로 늘린다 ...인지수사도 가능해질 듯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에 16명으로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(특사경) 조직을 31~32명으로 증원하고 인지수사도 가능하도록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”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☐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☐ 금융위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체계, 금감원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찰,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.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